

## 2. 조국통일방도의 모색

박 동 근 (북한 조국통일 연구원 실장)

여러분! 통일의 열망을 안고 남조선과 해외 여러 곳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하고 통일토론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하여 우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북에서 온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외에 계시는 학자들과는 여러 번 만나 통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오늘처럼 해외 학자뿐 아니라 남조선 학자들과도 만나 한 자리에서 민족의 대단결과 통일방도에 대하여 여러모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 학자들이 다 같이 참석한 오늘의 통일토론회는 비록 소박하고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북과 남,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통일노력을 민간급에서 결집시켜 나가는 데서 실로 작지 않은 의의를 가지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소중한 모임을 마련하시고 토론회의 성과적 진행을 위하여 온갖 편의를 다 돌보고 계시는 주최 측에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먼저 우리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누구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이시고 통일로상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로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어 조국통일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특히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시어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이론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조국통일 이론과 련방제 통일방안은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고귀한 유산의 한 부분이고 통일의 성스러운 길에서 언제나 앞장서 있어야 할 저희들 학자들이 소중히 간직하여야 할 우리 민족의 정신적 재부의 하나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족 공동의 조국통일방도를 바로 찾아내는 것은 우리

7천만 겨레 앞에 나서고 있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입니다. 물론 우리 겨레의 절대절명의 숙원이고 민족 지상의 과제인 통일문제를 풀어나가자면 우리나라에 대한 외세의 간섭과 외세 의존을 다 같이 물리치며 북과 남 사이의 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여야 하며 쌍방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발전시켜 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뿐 아니라 우리가 창건해야 할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통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또한 북과 남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던 대외관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유관국들과의 민족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 민족이 풀어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족 공동의 조국통일 방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민족 공동의 조국통일 방도를 찾아내야만 조국통일을 위한 전제를 마련할 수 있고 또 조국통일의 절차와 방법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으며 북과 남, 해외의 통일노력을 집대성하고 통일운동을 하나로 결속하여 통일의 주체를 튼튼히 마련하여 나감으로써 밝아오는 통일의 새아침을 주동적으로 마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은 외세에 의하여 민족이 분열이 시작된 바로 그 시각부터 수천 년의 유구한 우리 민족사와 슬기로운 민족전통, 그리고 조성된 안팎의 정세에 가장 적합한 조국통일 방도를 찾고 그것을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으로 확인해내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 방도 모색을 위한 투쟁을 옹근 50년 동안 계속해 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 방도를 찾아내기 위한 우리 민족의 피타는 노력은 1972년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 3대 원칙을 민족 공동의 통일원칙으로 확인하고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이룩되기 이전 시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의 노력은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겠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어

편 원칙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촉진시켜 나가겠다는가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통일세력과 분렬세력 사이에 투쟁은 조국통일을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해나가겠다는가?

우선 우리 민족의 총의에 의해서 하겠다는가, 아니면 유엔 감시 하에 하겠다는가, 또는 다음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도록 하겠다는가, 비평화적 방법을 허용하겠다는가, 그리고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민족대 단결을 이룩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가, 일방이 타방을 막고 먹히우는 방법으로 하겠다는가 하는데 귀착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조국통일의 원칙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도출된 조건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의 노력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을 구현한 통일국가, 그 실현방식을 방안화하고 그것을 민족 앞에 제시하여 전민족적인 토론을 거쳐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는 데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조국통일 방도를 찾아내기 위한 전민족적인 노력이 기울여 지고 있는 가운데 1980년에 우리의 련방제 통일방안(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이 온 민족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족 공동의 통일방도를 찾아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에서 참으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련방제 통일방안이 제시된 후 남쪽 당국자들도 이리저리한 통일방도를 만들어 내게 되었고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는 각계각층 속에서도 여러 가지 통일방안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기된 통일방도에 대한 방안들을 하나 하나 들어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제시된 통일방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비롯하여 남조선의 각 계층 속에서 나온 각이한 련방제까지를 포함한 련방제 통일방안이고, 둘째로는 남쪽에서 제기한 “국가연합”, 일명 “남북연합”이며, 셋째로는 김대중, 김락중이 제기한 통일방안으로서 “국가연합”과 련방제를 순차적으로 결합시킨 통일방안으로 갈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민족 공동의 통일방안 모색 현황을 이와 같이 정태적으로가 아니라

분석시각을 동태적으로 바꾸어 보면 우리의 련방제 통일방안이 나온 이후 남과 해외에서의 통일방도 모색과정은 확실히 련방제 방안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국통일 방도 모색이 이처럼 련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련방제 방안과 “국가연합”안 사이의 간격은 사실상 멀고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안으로 통일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밖으로는 랭전의 종식과 함께 힘에 의한 패권정책이 총과산되어 민족 자주의 대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오늘의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민족 내부에서의 조국통일 방도 모색과정을 하루속히 결속 짓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소리치며 환영할 가장 현실적이고 공명정대하고 현실성 있는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을 확정할 것을 더욱 절박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통일방도가 우리 민족 공동의 통일강령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련방제 통일방안이 북과 남, 해외의 모든 겨레에게 능히 접수될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는 통일방도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련방제 방안의 기본내용을 간단히 개괄해 보려고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지금 조선의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국가를 형성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제도상으로는 둘로 갈라져 있더라도 민족은 하나로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9권, 234페이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내놓으신 련방제 통일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설하여 나라를 통일할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련방제 통일방안에서 예견하고 있는 통일국가의 구조와 명칭, 그 활동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련방정부

련방정부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되는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거기에서 조직되는 련방상설위원회로 구성됩니다.

\*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는

- 북과 남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한다.
  - 정치문제
  - 조국방위문제
  - 외교문제

(2) 북과 남의 지역정부

- 련방정부의 지도 밑에 전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국호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한다.

(4) 련방국가의 활동원칙

-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며
- 북과 남 사이의 경제,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의 통일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복리를 계층적으로 증진시키며
-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련합군을 조직하여 민족을 보위하며
- 모든 해외동포들의 민족 권리를 옹호 보호하며
-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르게

- 처리하고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며
-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련방제 통일방안은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됩니다. 우리의 련방제 방안의 현실성에 대하여 론하기에 앞서 저는 먼저 우리의 련방제 방안과 조국통일 3대 원칙 사이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민족 공동의 조국통일 방도는 반드시 민족의 의사를 집대성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가 찾아내는 통일조국의 형태와 구조, 성격과 기능, 그 활동원칙 등, 그리고 이러한 통일국가 창건방식에서 조국통일 3대 원칙, 특히 자주 원칙이 명백히 구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련방제 방식에 의한 통일방도는 민족 공동의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는 데 그 근본 특징이 있습니다. 일가식술이 사는 매 가정의 살림집도 먼저 주추들을 놓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북과 남, 해외에 갈라져 살고 있는 7천만 겨레가 다같이 불편없이 안겨 살 통일의 집도 먼저 주추들이 놓여져야 하고 일단 기초가 마련되면 그에 철저히 의거해서 통일의 건물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내외에 선포한 조국통일 방도모색의 출발점으로 되며 우리가 짓게 될 통일국가란 거창한 집의 형태와 구조를 규제하는 “주추들”로 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통일방안도 조국통일 방도모색의 이 근본요구로부터 리탈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조국통일의 기본원칙으로 되는 자주 원칙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이야말로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이 양보할 수 없는 조국통일의 대원칙으로 되는 것은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열되고 외세의 간섭으로 분열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세의 간섭으로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조장되고 민족의 대단결이 방해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민족이 하나가 되어 평화적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원칙도, 민족대단결의 원칙도 실재상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련방제 통일방안은 7.4공동성명에서 민족 공동의 통일원칙으로 확인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민족의 념원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현실 그리고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다같이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련방제 통일방안의 정당성, 공명정대성, 현실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선 이 방안이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조선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며 어느 일방도 타방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양보하려 하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하는 외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일 이 밖의 그 어떤 다른 방식이 있다면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이 타방에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방법이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1975년 북부 월남이 전쟁의 방법으로 남부 월남을 통합한 그러한 통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1990년에 서부 독일이 동부 독일을 “흡수통합”한 방법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부합되지도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재현될 수 없습니다. 월남에서처럼 조선에서 이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것은 곧 바로 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민족의 공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독일에서처럼 어느 일방이 타방을 돈으로 녹여내려고 든다면 그것은 언제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으로 밖에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절박하다고 하여 먹고 먹히우는 길을 택할 수 없으며 제도가 다르고 사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오늘의 분렬상태를 기약없이 끌어갈 수도 없습니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

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련방제 방식에 의한 조국통일은 제도 통일은 뒤로 미루고 민족 통일을 먼저 실현해야 할 우리나라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련방제 방식이 조국통일 방도로서 가장 정당하다고 보는 근거의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남북연합”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남북연합”은 세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남북연합”이 1 민족, 1 체제라는 제도 통일로 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다음은 “남북연합” 자체가 “국가연합”의 별명에 지나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제창자 자신들조차 그에 대해 실질적 의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남북연합”이란 련방제 통일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제도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그 기회를 엿보기 위한 일종의 함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이 그 본질에 있어서 제도 통일을 감싸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지난해 8.15를 전후하여 “남북연합”론 제창자 자신이 이제 “남북 사이의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하면서 통일의 기본 철학은 “자유민주주의리념”이고 통일국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라고 말한 데서도 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타방에 양보하려 하지 않는 엄연한 현실을 앞에 두고 “체제경쟁의 종말”이니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이니 하는 것을 감히 입에 담은 것은 의도적인 현실외면이고 무분별한 반공대결행위의 극치로 됩니다.

일부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은 또한 오늘의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전문)이며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제1조)를 규정하고 있는 “북남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연합”이란 “연합”이란 막 뒤에서 나라의 분렬을 합법



화하고 나아가서 그 누구를 먹어보려고 칼을 베푸는 데 필요한 시간을 얻어보려는 대결과 전쟁을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는 우리의 연방제 통일방도가 가장 정당한 통일방도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이 방안이 북과 남의 리익을 다같이 고려한 공명정대한 방안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연방국가는 북과 남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제도 위에 형성되는 것만큼 통일국가는 쌍방의 리익과 리해관계를 다같이 공정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연방국가가 어느 일방의 리익을 희생시키고 다른 일방의 리익만을 앞세운다면 연방국가가 자체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와 류사한 실례를 북부 예멘과 남부 예멘이 협상의 결과로 통일예멘을 창건했으나 얼마 못 가서 북남 사이의 대립이 커져 결국 내전으로 번졌던 사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1990년 북부 예멘과 남부 예멘은 앞으로 2년 반 후에 총선거를 통해 1 체제, 1 정부를 세우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할 데 대해 합의하고 총선거를 준비하는 과도기간에는 최고결정기관으로 5명으로 구성되는 대통령평의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5인 중 의장을 포함한 3명은 북측이, 나머지 2명은 남측이 맡게 되었고 통일예멘의회는 북측 159명, 남측 111명으로, 내각도 북측이 20명, 남측이 1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통일예멘의 수도도 북부 예멘의 수도였던 사나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통일예멘의 과도기정권 구상은 북에는 유리하게 남에는 불리하게 매우 불평등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방제 국가는 통일국가의 구조, 운영원칙, 국호 등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두 제도의 리익을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국가를 형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고 통일정부도 북과 남이 같은 수의 대표들로 구성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과 남은 연방국가의 태두리 안에서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체를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며 연방국가는 대외적으로 중립로선을 견지할 것을 예견하

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호도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통일 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리념을 반영하여 쌍방이 부담 없이 다같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려민주련방공화국으로 하기로 예견되어 있습니다. 특히 련방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 사적소유와 개인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관행위를 추구하지 않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련방제 통일방안은 련방국가가 북과 남의 리해관계를 다같이 동등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어느 일방에도 상대방에 대하여 특전을 가지거나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공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으로 되는 것은 또한 이 방안이 능히 실현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같이 선택할 수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 방안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의 하나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리상적으로 엮어진 통일방도라도 이러저러한 현실조건으로 그 실현이 가능치 않다면 그것은 통일에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도는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조건에서 그것을 그대로 두고 능히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념원이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단군민족은 5천여 년을 한 강토 위에서 같은 핏줄을 이어온 세계에서도 그 류례를 찾기 힘든 단일민족이며 갈라져서는 실 수 없는 운명공동체입니다. 우리 민족은 분렬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모두가 통일되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의 당위성과 련방제방식에 의한 통일의 합리성과 현실성을 립증하고 있는 분렬된 나라들의 통일교훈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와 련방제방식에 대한 지지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 민족이 민족분렬을 반대하

고 통일을 넘원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민족통일은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과도 관련합니다. 오늘 세계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사상과 정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한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자기들이 신봉하는 사상에 따라 정당, 사회단체와 같은 정치조직을 묶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벌리고 있으며 심지어 함께 정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련방제방식에 의한 조국통일방도는 우리 민족의 이와 같은 통일념원과 현대세계 정치사가 낳고 있는 실제적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됩니다.

우리의 련방안은 이처럼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전체 조선 인민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이해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방안으로 됩니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민족을 우위에 놓고 민족적 리념에 철저히 의거하여 통일방도를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방안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민족의 자주성 문제를 계급해방이나 인간해방문제보다 우위에 놓으며 그것을 선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 리론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입니다. 사실 선행한 로동계급의 리론에서는 민족문제를 언제나 계급문제나 사회제도문제에 종속된 문제로 보고 민족문제는 정권이 교체되고 지배계급이 달라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민족문제에 관한 이러한 리해는 아직도 식민지 민족들이 력사의 주체로 튼튼히 자리나지 못하고 력사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던 시대적 제한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 데 대한 방안은 바로 이러한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민족문제를 가장 높은 자리에 놓고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을 밝힌 것입니다. 또한 이 방안은 제도통일이 아니라 민족통일로서 나라를 통일하는 새로운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렬된 나라들의 통일은 제도통일을 그 내용으로 할 수도 있고 민족통일을 그 내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중앙정부를 내오는 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을

태하면 조국통일은 동시에 제도통일을 가져오며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역에서의 총선거가 실제로 가능치 못한 경우 연방국가를 창설하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길을 택한다면 제도통일은 뒤로 미루어진다 하여도 민족적 통일은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연방국가의 창설이 과연 조국통일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도통일에 앞서 민족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면서 그것을 완결된 조국통일로서가 아니라 “완전한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방제국가의 창설을 완전한 민족적 통일로 보는 것은 그것이 첫째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게 되며 둘째로, 전지역을 관할하는 통일국가가 형성되며 셋째로,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민족적紐帶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연방제 통일방안이 가장 좋은 통일방도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현을 위한 절차나 방법에서는 다른 긍정적인 의견도 배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마련해내자면 조국통일방도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협상마당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민족구성원들을 통일방도 모색을 위한 토론에 참여시키지 않고서는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를 확정하는 일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우리 통일토론회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귀중하며 우리가 제기한 바 있는 8. 15 대민족회의는 조국통일 방도모색에서 결정적 전환의 계기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정세는 좋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실현을 굳게 제동하고 있던 동서랭전구조의 마지막 구축물이 조선반도에서 소리내며 무너지고 있으며 분단 50년이 자 해방 선 돌이 되는 8. 15을 맞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은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온 민족의 뜨거워지는 통일열망에 받들려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모색은 멀지 않아 착실한 결실을 맺게 되고 아울러 90년대 통일의 날도 오래지 않아 밝아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주제보고를 끝맺겠습니다.